

# '부동산 한파' 금융권 가계대출 감소세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2년 만에 가장 적게 증가했고 그중 가계대출은 5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계절적 특성상 수요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규제 강화로 주택매매거래가 둔화하면서 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아예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15일 한국은행의 '1월중 금융시장 동향'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82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지난 2017년 1월(1000억원 증가) 이후 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은행 가계대출 1.1조 ↑...신용대출 5년來 최대 감소  
전세자금 수요 지속에도 주택거래 둔화·계절 영향  
연말 상여금 지급 등으로 신용대출 줄어든 여파도

적었다. 전월 증가액(5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610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전월 4조9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해서는 축소된 수준이다. 지난해 4월(2조4000억원 증가) 이후 9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이었다. 다만 지난해 같은달 1조3000억원 늘어난 데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다소 확대된 것

이는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나 전세자금 수요가 지속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은 관계자는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파악은 어렵지만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00호로 1년 전(1만호)보다 큰 폭 줄었다. 반면 서울시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지난해 1월 1만호

에서 지난달 1만8000호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기타대출은 급감했다. 지난달 기타대출은 217조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 2014년 1월(1억8000만원 감소) 이후 5년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다. 설 상여금과 성과급 등이 유입된 영향이다. 아울러 신용대출까지 육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기업대출(831조7000만원)은 지난해 12월 6조8000억원 감소했다가 지난달 7조8000억원 늘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말 일시 상환한 재취급과 부가세 납부를 위한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출은 3조4000억원 증가했고, 중소기업 대출도 4조3000억원 늘었다.

자영업자가 주로 빌리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1조1000억원 늘어 31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3000억원 증가)보다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통상 1월에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지난해 1월 증가폭은 1억5000만원이었다.

상호금융과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1조3000억원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2조6000억원 축소된 것이다. 신용대출은 4000억원 늘었으나 주택담보대출이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 감소했고 보험사에서는 4000억원 줄었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은 3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국이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1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가계대출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류 열풍' 타고 작년 문화부문 국제수지 흑자 '역대 2위 규모'

### 게임 산업도 효자

'한류 열풍'으로 지난해 국내 드라마나 영화 음반 수출이 늘어나 문화 부문 국제수지가 역대 2위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17일 한국은행의 '2018년 국제수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는 2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이는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 2016년 4억7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다.

2017년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여파로 드라마 등의 수출길이 막혀 흑자가 2억 달러로 내려앉았다가 지난해 다소 완화되면서 흑자 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는 영화나 라디오, TV프로그램, 드라마, 음반 등 주로 문화 콘텐츠 부문과 관련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수입)에서 지급한 돈(지출)을 뺀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보건의료, 교육 부문도 포함되었으나 비중은 적은 편이다.

지난해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출 등으로 벌어들인 돈은 11억1000만달러에 달해 2016년(11억3000만달러)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9억3000만달러로 줄었다가 1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중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입이 7억7000만달러로 3분의 2 정도를 차지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수지는 지난 2014년 처음 2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선 뒤 2015년 2억2000만달러, 2016년 4억7000만달러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가수 등의 인기가 중국, 일본을 비롯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관련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향이다.

최근에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해 미국 음반 시장에서 60만307장의 앨범을 팔아 에미넴에 이어 연간 음반 판매량 차트 2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심 적자를 면치 못하는 서비스수지에서 이러한 콘텐츠 부문의 약진은 두드러진다. 지난해에도 전체 서비스수지는 297억4000만달러 적자를 내 역대 2위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 게임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이와 관련된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수치는 21억1000만달러 흑자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수입액도 51억3000만달러로 역대 가장 많았다. 통신·컴퓨터·정보 서비스 부문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를 비롯해 온라인 게임 등도 포함된다.



### 2000여개 색상을 내 맘대로 믹스한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톤브릭 홍대점에서 모델들이 신규 색조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을 론칭을 알리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톤브릭은 다채로운 색상을 재미있는 블록 형태로 구현한 신규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립스틱 색상만 95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컬러를 보유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스톤브릭 홍대점에서 모델들이 신규 색조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을 론칭을 알리며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스톤브릭은 다채로운 색상을 재미있는 블록 형태로 구현한 신규 색조 화장품 브랜드로 립스틱 색상만 95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컬러를 보유하고 있다.

## 작년 편의점 신용카드 사용액 '역대 최대'...증가율 4년來 최저

### 7조3733억원

지난해 국내 편의점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다만 전년비 사용액 증가율은 2015년 이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소비둔화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11월까지 편의점 신용카드 사용액은 7조37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6조7343억원에 비해 19.88% 증가한 것이다. 아직 통계가 잡히지 않은 12월 사용분을 감안하면 지난해 총 사용액은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편의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관련 통계를 시작한 지난 2010년 이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10년 1조9000억원 수준이던 사용액은 지난 2015년 4조8000억원으로 5년만에 4배 가까이 커진 이후 3년만에 또 다시 2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편의점 신용카드 사용 증가율은 2015년 41.1%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내리막길이다. 2016년 33.13%, 2017년 23.91%였으며 지난해는 19%대로 폭 떨어졌다. 지난해 증가율은 2014년(15.14%) 이후 역대 2번째로 낮은 증가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편의점의 신용카드 사용규모 증가는 국내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데다 편의점에서의 증가도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 LOTTO 제 846회차 당첨결과 (2019년 2월 16일 추첨)

5 18 30 41 43 45 + 13

순위	당첨개입수	1인당 당첨금액	당첨기준
1등	13	1,596,884,395원	당첨번호 6개 숫자 일치
2등	69	50,143,713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997	1,732,557원	당첨번호 5개 숫자 일치
4등	106,009	50,000원	당첨번호 4개 숫자 일치
5등	1,797,728	5,000원	당첨번호 3개 숫자 일치

당첨금 지급기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약정업)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